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龍-형제 이야기
수상내역	최우수상(재단이사장상)
작가	이윤영
공모분야	트리트먼트
장르	연극, 드라마
소재	청주 용두사지철당간
시놉시스	<p>#사막같은 모래밭(예종의 꿈)</p> <p>사방이 온통 황량한 모래밭. 멀리서 관세음보살幡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예종. 주변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소리쳐 형을 불러보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때 멀리서 대장간의 쇠소리가 들려온다.</p> <p>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푹푹 파이는 모래산을 넘기 힘들다. 깃발을 손에 꼭 쥐 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힘겨운 행진을 계속하는 예종.</p>



:: 최우수상 ::
재단이사장상

龍 - 형제 이야기



이 윤 영

龍 - 형제이야기

#사막같은 모래밭(예종의 꿈)

사방이 온통 황량한 모래밭. 멀리서 관세음보살幡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예종.
주변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소리쳐 형을 불러보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때 멀리서 대장간의 쇠소리가 들려온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푹푹 파이는 모래산을 넘기 힘들다.
깃발을 손에 꼭 쥔 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힘겨운 행진을 계속하는 예종.

#용두사 연등회장

성대한 연등회가 열리는 사찰안팎은 많은 신도들로 북적인다.
호족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연회장에서는 호족들이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다
술상 아래 자리를 잡고 있던 김원은 김희일의 부름을 받고 한가운데로 나선다.
김희일은 김원의 장원급제를 축하해주며 호족들과 건배를 제안하지만 호족들은 양민인 김원이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게 불쾌한 듯 마지못해 술을 따라준다.
누군가 김원에게 김희일처럼 답답한 관리는 되지말라며 은근슬쩍 김희일을 비꼰다.
술취한 호족들은 김희일이 노비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김희일은 나라의 정책을 따르는게 백성의 도리라며 자신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린다. 사람이 죽었다는 전언이다

#용두사 해우소 부근

죽은 사람은 청주목 최고갑부인 최영수이고 현장에서 잡힌 범인은 그 집 노비인 만득이다. 만득이는 얼마 전
주인과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주인대신 3년상을 치러준 것에 대한) 이겼는데도 주인이 돈을 주지 않자 찾감에
낮으로 주인을 내리친 것이다. 행사가 중단된 채 손님들이 떠나고 명진스님은 망자를 위해 불공을 드린다.
명진스님은 김희일과 마주치자 목숨은 부처님 손에 달렸다고 불사를 권한다.
김희일은 처음 보는 스님이 집안의 우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그의 말을 곱씹어 보는데 바우아범이
달려와 예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한다.

#예종의 방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예종은 폐렴이 깊어져 며칠째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의원에게 오늘밤이 고비라는 말을 들은 김희일은 손가락을 꿰어 그 피를 예종에게 먹이고 밤새 예종의 곁을
지킨다.
이른 새벽 눈을 뜬 예종은 간밤의 꿈이야기를 한다. 혼자 관세음보살幡을 휘두르며 사막을 달려왔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무거운 깃발을 든 채 하늘만 바라봤다는 것이었다.
김희일은 외로이 사투를 벌인 동생에게 미안해하며 가보인 단도를 건넨다.

#저자거리

강이는 술취한 막철을 업고 저자거리를 가로지른다.
상인들은 효녀라고 칭찬하지만 강이는 주정뱅이 아버지를 똥통에 던져버린다.

그런 강이를 막아서는 사람은 절에 가던 김희일과 예종이다.

김희일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금수만도 못하다며 강이를 나무라지만 강이는 차라리 금수라면 버리고 떠날 것을 사람의 탈을 쓴 까닭에 업고 다닌다며 김희일의 꾸짖음을 원망한다.

주위에서는 감히 높으신 분앞에서 할 말 다하는 강이를 걱정스레 보지만 김희일은 군관에게 막철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시킨다.

그때 술취한 막철이 꽃순이를 부르며 운다. 꽃순이는 죽은 강이엄마의 이름이다.

강이는 엄마이름이 막 불러지는게 싫어서 다시 막철을 들쳐 업고 집으로 떠난다.

예종은 그런 강이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용두사

김희일과 예종은 어머니의 기제사를 지내고 있다.

김희일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란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 얘기를 들려준다.

#절 아랫길

용두사에 다녀오던 김희일과 예종은 탁발중인 명진스님과 마주친다.

명진스님은 예종을 보자마자 머리 숙여 절하고 김희일은 명진스님을 기억하며 불사를 하면 예종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묻는다.

명진스님은 그건 부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 남들이 시기하지 않게 비밀리에 불사를 추진하라고 조언한다. 김희일은 예종이 꿈에 보았다는 깃발을 떠올리며 철당간을 세우기로 하고 바우아범에게 최고의 대장장이를 찾아오라고 시킨다.

#막철의 대장간

술이 깬 막철은 똥꿈을 꾸었다며 곧 대박이 터질것 같다고 허풍을 떠난다.

강이는 피한방울 안 섞인 자기를 거뒀준건 고맙지만 쇠 두드리는 소리와 아버지 술주정을 들으며 사는게 지긋지긋하다.

또 한번 술을 마시면 펄펄 끓는 쇠독에 빠져 죽을거라며 집을 나가는 강이.

#빨래터

눈보라가 휘날리는 개울에 앉아 강이는 빨래방망이를 휘두르며 화를 삭인다.

기이한 행색의 명진스님이 관상을 봐주겠다며 접근하자 강이는 빨래방망이를 들고 설치다 개울에 빠진다. 강이가 머리 깎고 중이 되는 방법을 묻자 명진스님은 부처를 구할 상이라며 곧 좋은 소식이 올거라고 말해준다.

#대장간

막철은 일감이 있으니 국밥집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다.

강이는 얼마전 만난 스님이 좋은 소식이 올거라고 말했다며 즐거워하지만 막철은 왠지 불안하다. 제대로 된 일이라면 대장간으로 찾아오거나 집으로 부르지 국밥집에서 몰래 만나자는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강이는 도적떼가 막철의 목숨을 노린 수작일지도 모른다며 따라가려고 하지만 막철은 여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집안일을 잔뜩 시켜 놓고 집을 나선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강이가 그대로 물러설 리가 없다.

#장터 국밥집

막철이 국밥집 방문을 열었을 때 방에는 김희일 혼자 앉아있었다.
막철이 먼저 김희일을 알아보고 넋죽 절하자 김희일은 빠른 시간 안에 철당간을 제작해달라며 선금을 준다.
문밖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리자 김희일이 벌떡 문을 연다.
강이가 방문앞을 서성이던 수상한 놈을 잡은 것이다.
그는 살인범 만득의 형이었는데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마을길

막철은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라는 주문이 맘에 걸리지만 강이는 김희일의 인격과 품성에 반해 무조건 일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막철은 강이 입에서 ‘철’, ‘용’소리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며 강이 입을 막는다.

#관아

살인범 만득에게 태형이 언도되자 호족들은 형량이 약하다며 반발한다.
김희일은 최영수의 사인은 낫을 피해 뒤로 자빠지면서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며, 위자료를 주지 않았고 집안의 노비로 부릴 때도 학대와 무시를 일삼아 원한을 사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망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김희일의 집

김희일은 바우아범에게서 노비가 줄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필요한 만큼 사람을 사면 되지 않겠느냐는 김희일의 말에 바우아범은 일꾼들이 다른 호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집에는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애긴즉슨 노비안검법대로 노비들을 풀어준 처사나 살인범 만득에 대한 판결에 불만이 많은 호족들이 중간에서 다른 노비들을 막고 있는 것이다.

#기방

김희일이 김원에게 관료의 행실에 대해 조언하자 술취한 김원은 그래서 김희일에게 남은게 무엇인지 되묻는다.
김원은 일개 노비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오합지졸이라도 꾸릴 생각이라며 가산도 축내고 노비는 떠나고 호족들 마저 등을 돌린 김희일을 비웃는다.
김원은 왕의 정책을 잘 이행한 포상으로 중앙 진출을 피할 속셈이 아니냐며 김희일을 떠본다.
김희일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원이 자신을 매도하는데 화가 난다. 게다가 이제 막 정계에 진출한 신참이 벌써 권력의 맛을 알아 가는게 안쓰럽고 답답하다.
김원은 김희일의 충고를 고깝게 듣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두고 보자며 자리를 뜬다.

#한림원 일각

김원은 양인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동료들에게 무시당해왔다.
동료들은 중요한 공문을 일부러 누락시켜 김원을 곤란에 빠트린다.
분을 삼키던 김원은 왕이 밤중에 한림원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숙직을 자처해 왕의 눈에 들 기회를 만든다.

#조정 일각

김원의 야망을 눈치 챈 권두만은 김희일을 몰락시킬 패를 잡기 위해서 김원을 불러 김희일과의 친분을 떠본다.
눈치 빠른 김원은 권두만이 김희일을 견제하려고 자신을 불렀음을 깨닫고 두 사람이 의형제 이상임을 강조하여

권두만의 신임을 산다.

왕과 권두만을 등에 업은 김원은 더욱 기세등등해진다.

#김원의 집

김원은 철당간 발문을 부탁하는 예종의 편지를 받고 흔쾌히 허락한다는 답장을 한다. 김희일의 집을 방문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희일의 집

예종은 생일날 김원이 온다는 편지를 받고 즐거워한다.

예종에게 김원은 많은 지식과 세상이야기를 들려준 훌륭한 스승이었다.

김희일은 김원이 철당간 발문을 써주기로 했다는게 찝찝하지만 싫은 내색을 못한채 김원을 맞이한다.

#막철의 대장간

강이는 철을 구하러 나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막철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다. 혹시 막철이 술에 취해 쓰러진게 아닌가 큰길로 나가보는데 멀리서 수레를 끌고 오는 막철이 보인다. 강이는 목욕재개까지 하고 풀무에 불을 지피는 막철을 보며 이번 작업을 특별하게 준비하는 이유를 묻지만 막철은 여자가 나서면 부정탄다며 대장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말한다.

사실 막철은 요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철당간 제작을 마지막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종의 방

예종은 김원이 써준 철당간 발문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김원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과거에도 도전해보라며 책을 선물한다.

김희일은 김원이 예종에게 헛된 꿈을 키워주는 것 같아 불안하다.

#김희일의 집 일각

예종의 방에서 나오던 김원은 바우와 그의 어머니가 김원의 신분상승에 대해 수다 떠는걸 듣고 바우의 뺨을 때리고 무릎 꿇고 빌게 한다.

김희일은 김원이 변한 것 같아 두렵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대놓고 남을 무시하거나 큰소리를 내는 일은 없었고 남의 집에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노복들 앞에서 민망할 지경이다.

김원에게 멸시당한 바우는 그날 밤 집을 나가버린다.

#김희일의 집 후원

예종도 김원이 전과 달라진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예종은 출세와 권력이 사람을 바꿔 놓은 것 같으며 슬퍼하고 김희일은 김원을 경계하는 편이 좋겠다고 충고한다. 예종은 철당간 발문은 스승이며 최고의 명필인 김원의 글로 새기고 싶다고 부탁하자 김희일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

#대장간

새벽에 대장간에 도둑이 들어 칼과 낫을 쓸어간다. 막철은 도둑들과 싸우다가 큰 상처를 입지만 무사히 철을 지킨 것에 감사한다.

강이는 죽은줄 알았던 막철이 살아나자 철당간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고 울부짖는다.

#관아

강이는 김희일에게 막철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선금은 어떻게든 갚을테니 말미를 달라고 차용증을 내보인다.

김희일은 작업기간이 길어지는데 대한 책임은 묻겠으나 한번 일을 맡긴 이상 반복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막철의 약을 지어준다.

김희일의 처분에 감동한 강이는 넘죽 절하고 나오면서 김희일을 위해서라도 꼭 철당간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한다.

#대장간

강이는 엄살 피는 막철을 깨워 억지로 약을 먹인다. 철당간 제작을 그만두면 선금의 수십 배를 물어줘야 한다고 겁을 주더니 자기한테도 일거리를 달라며 막철을 들볶는다.

#김희일의 집

김희일이 출타한 사이 도적떼가 들이닥쳐 노비문서와 돈, 먹을 것을 훔쳐간다.

예종은 복면을 한 도적과 맞닥뜨리지만 힘없이 무너진다.

예종은 복면너머로 보이던 눈빛이 어릴적 부터 자신과 함께 커온 바우임을 알아보고 괴로워한다. 예종은 형수와 조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앓아 눕는다.

김희일은 예종에게서 도적떼 중에 바우가 있더라는 말을 들었지만 예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바우의 일은 덮어두기로 한다.

바우아범은 김희일의 선처에 감동하여 죽을때 까지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다.

#조정

청주목에서 도적떼가 출몰했다는 소식에 권두만은 김희일을 축출해낼 건수를 잡고 김원을 내려 보내 사태파악에 나선다.

#관아

김원이 현장조사를 나왔지만 김희일은 수사중이라는 말외엔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다.

김원은 김희일 집안까지 도적떼가 출몰한건 관료를 우습게 봤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정치와 처벌을 요구한다.

김희일은 일개 절도사건까지 개입하려는 김원의 월권을 질타하지만 김원은 앞으로 모든 행정과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될거라고 경고한다.

그리고는 광종의 숙청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잘 보이는게 좋을거라고 으스댄다.

하지만 김희일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백성이자 관료가 아니라고 일축한다.

김원은 끝까지 자신보다 우위에 서려는 김희일을 보며 분노한다.

#예종의 방

예종을 병문안 온 김원은 폐허가 되버린 집안을 보며 김희일의 도도함을 비웃는다.

예종은 탐관오리들의 집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김희일을 두둔하지만 김원은 숙청당하는 호족들을 거론하며 김희일도 몸조심해야 할거라고 겁준다.

김원은 바우가 보이지 않자 행방을 묻고 예종과 바우아범은 얼굴에 둘러대느라 말을 맞추지 못한다.

#주막

김원은 주모에게 김희일의 집안 얘기를 던지시 떠본다.
주모는 김희일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며 안쓰러워한다. 집에서 키운 노비자식도 김희일을 배신하고 도적떼가 됐다며 김희일이 옛정을 생각해서 봐준 것 같다고 껄속말을 한다.
주막에 술을 받으러 왔던 강이가 주모에게 왜 남의 집안 얘길 떠들고 다니냐며 욕박지르자 김원은 손님들 눈을 피해 자리를 뜬다.

#철당간

막철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작업중이다.
30개의 원통마다 크기가 달라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대장간을 지나던 명진스님이 불력이 느껴진다고 다가오자 막철은 독경을 부탁한다. 하지만 명진스님은 여기서 독경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상하게 볼테니 절에 가면 해주겠다고 시주를 부탁한다.
막철은 맹종이라고 욕하지만 강이는 기가 막힌 예언을 한 스님이라며 쌀을 퍼준다.

#조정

귀족들 숙청은 계속되고 있고 호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세금을 바치며 몸을 사린다.
광종은 새 절을 짓고 佛具를 제작하기 위해서 철을 모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김희일의 집

김희일은 인근 호족들이 가산을 압류당하고 숙청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자신에게도 곧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다.
노비문서와 가산정리는 원칙대로 마무리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숙청되면 예종 혼자 집안 살림과 남은 가족을 책임져야할 일이 걱정됐다.
김희일은 집안일에 예종의 손이 최대한 적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문중에도 예종의 양자를 구하는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관아

무기와 농기구를 제외한 철제품 제작을 중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철 수거작업이 시작된다. 김희일은 철당간 제작이 걱정 되서 막철을 부른다.

#막철의 대장간

막철은 철 수거반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리자 완성된 철당간과 비축해두었던 철을 동굴에 숨겨 위기를 모면한다.
막철이 김희일을 만나러간다는 말에 강이는 혼자가면 남들이 수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고 따라나선다.
막철은 강이엄마가 입던 한복을 꺼내주면서 예를 갖추라 하고 강이는 난생처음 입어보는 치마저고리와 땀을 어색해하면서도 들뜬 마음으로 막철을 뒤따른다.

#김희일의 방

김희일은 막철이 관군 몰래 철을 비축해 놓은 것을 고마워하며 남은 작업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것을 부탁한다.
결국 30개의 원통을 20개로 줄이고 용머리를 없애는 것으로 합의한다.

#김희일의 집 후원

막철이 김희일과 철당간 제작에 대해 의논하는 동안 강이는 후원을 둘러본다.
어느 방 뒤편 아래 놓인 꽃신을 신어보던 강이는 갑자기 나타난 예종 때문에 엉덩방아를 찧는다.
강이는 예종이 저자에서 만났던걸 기억하자 민망해하면서도 비록 금수만도 못한 계집이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똑부러지게 상황을 설명한다.
예종은 신발이 맘에 들면 가져도 좋다고 하지만 강이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려 예종을 무안하게 만든다.
뒤늦게 나온 막철은 강이가 또 사고를 친줄 알고 예종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강이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굶신거리냐며 화를 내다가 막철에게 끌려나간다.
예종은 바우아범에게 대장장이 부녀에 대해 묻고 그들이 철당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듣는다.

#동네 길

강이는 잘생긴 소년이 생각나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그 소년에 대해 묻는다.
막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련님은 알아서 뭐할거냐며 걸음을 재촉한다

#대장간 움막

강이는 낮에 본 예종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룬다. 그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니 더욱 그리워지는 밤이다.

#김희일의 집

김희일은 가산을 대폭 정리하고 향리직에서도 물러나려고 하지만 김희일의 뒤를 이을 책임자가 없어서 사직서가 반려된다.

#김희일의 집 후원

후원을 산책하던 예종은 담장위의 들꽃을 보면서 얼굴이 환해진다.
요 며칠 누군가 계속 들꽃을 꺾어다 놓고 가는데 가솔들에게 물어봐도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
형수는 누군가 예종을 좋아하는가보다며 놀리고 예종도 은근히 마음이 설렌다.
그러던 어느 날 예종은 인기척에 밖으로 나왔다가 꽃을 두고 가는 아이를 본다.
작은 체구에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분명히 강이다.
사실 예종도 강이 생각에 잠못 이룬 날이 많다. 집안 분위기도 어두운데 여자생각이나 하고 있는게 미안해서 애써 생각을 지웠는데 꽃신을 신으며 환하게 웃던 강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예종은 꽃을 놓아두는 자리에 꽃신을 올려놓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강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예종은 병이 난다.

#대장간

막철은 이미 만들었던 불상과 종을 녹여 철당간 만드는데 보탠다.
강이는 완성된 작품을 버리는게 아까워서 막철을 말리지만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
막철은 앞이 안보이는 증세가 심해지자 강이에게 일을 가르친다.
강이는 작업장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던 막철이 풀무질이며 담금질까지 시키자 화가 난다. 일이 힘들게 아니라 예종에게 꽃을 건네러 갈 시간이 없어서다.

#조정

김희일이 바우의 도적질을 눈감아 주는 댓가로 바우아범을 매수해서 노비들을 불러모으고 불법으로 고용한다는

투서가 올라온다.

김원의 보고를 들은 권두만이 작성한 거짓 상소였다.

#김희일의 집 담장아래

바우어머는 비설거지를 하러 나왔다가 담장에 꽃신이 놓여있는걸 보고 거뒀다.

강이는 빗속을 달려가 담장아래 들꽃을 놓아두고 예종이 나오나 지켜본다.

얼마 후 바우어머가 그 꽃을 가지고 들어가는걸 본 강이는 크게 실망한채 다시는 꽃을 선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예종의 방

예종이 자리에 누운 후 바우어머가 매일 꽃을 가지러 나갔지만 허탕이었다.

며칠만의 꽃 선물에 예종은 희미하게 웃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진다. 잡혀간 형의 안부가 걱정되서다.

#김희일의 집 마당

바우어머는 아내가 꽃신을 챙긴걸 보고 화를 내며 제자리에 갖다 놓지만 그날이후 강이는 찾아오지 않았다

#우암산 일각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산사태로 쓸려간 땅에서 기둥두개와 받침돌이 솟아오른다. 백성들은 뭔가 큰일이 있을 모양이라며 두려움에 떨지만 명진스님은 부처의 선물이라며 그 돌을 용두사로 옮기도록 한다.

#호족회의

김희일이 개경으로 이송되자 그를 지지하던 호족들과 지역유지들은 불뚱이 자신들에게 튈까 염려하여 몸을 사리고 김원의 사주를 받은 몇몇은 김희일이 사리사욕 때문에 향리직을 수행한양 그를 궁지로 몰아간다.

#조정 일각

권두만은 김희일을 옹죄려고 그가 사사로운 용도로 철당간을 만드는 것은 왕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고한다.

하지만 김원은 자신이 발문을 쓴게 들통날까봐 철당간 제작을 중단하면 불자들의 반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

하지만 광종은 국가기강과 관련된 일이라며 철당간 제작을 중단하도록 명한다.

#대장간

막철은 흐린 눈으로 용머리를 만드느라 고전중이다. 마침 철당간 높이에 걸맞을 받침돌이 나타났다는 말에 모든게 천운임을 깨닫고 박차를 가하는데 철당간 제작을 중단하라는 어명이 내려온다.

#관아

막철은 철을 숨겼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투옥되고 강이는 뒤늦게야 막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강이는 그동안 막철이 왜 그렇게 자신을 호되게 가르쳤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감옥

김희일은 면회 온 바우아범에게서 철당간 제작이 중단됐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다.
김희일은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종을 명진스님에게로 피신하라고 부탁한다.

#예종의 방

예종은 형수와 조카들을 두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괴롭지만 가문을 위해서라는 형수의 말을 듣고 바우아범과 떠날 차비를 한다.

예종은 형이 선물했던 단도를 품고 집을 나선다.

#주막

장마가 계속되어 피해가 속출하자 백성들 시름이 깊어진다.

탁발 온 명진스님은 용두사에 철당간을 세우면 홍수를 면할 수 있을거라고 말한다.

형제의 철당간을 완성하기 위한 계책이기도 했다

#조정

용두사에 철당간을 세우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상소가 올라오자 왕은 고심 끝에 철당간을 건립하되 발문에는 왕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며 교지를 보낸다.

덕분에 막철도 옥에서 풀려난다.

#개경으로 가는 길

노비들이 가담한 역모세력이 발각되어 개경으로 압송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호족들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 자백하는 바람에 김희일도 주동자로 잡혀간다. 김희일은 예종이 멀리 피할 때 까지 시간을 벌고 싶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관군들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대장간

김원이 왕의 교지를 들고 막철을 찾아온다. 철당간을 만들되 왕의 치적과 연호를 새기라는 어명이었다. 막철과 강이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그 시각 김희일은 역모혐의로 끌려가고 있었다.

강이는 김희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두가지 발문을 새기자고 막철을 설득한다.

#산속

관군들이 추격해오고 비가 그치지 않자 바우아범은 초막에 몸을 숨긴다.

예종이 시름시름 앓자 바우아범은 약재를 구하려고 민가로 내려가다가 갑작스레 불어난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다.

하루가 지나도 바우아범이 돌아오지 않자 예종은 혼자 산을 내려간다. 그러나 길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중 강이를 만나 동굴로 피신한다.

#동굴

예종은 강이와 명진스님이 지극한 간호로 사흘만에 눈을 뜬다.

그러나 목소리를 잃고 연일 악몽에 시달린다.

강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리는 예종을 위로하며 곁에 머물지만 예종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조정

장마로 옥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죄수들이 탈옥하고 개경일대가 술렁인다.

김희일은 죄수들 중에서 바우를 발견하고 바우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뒤따라온 관군들에게 일망타진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희일은 죄수들의 탈옥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단두대에 오른다.

김원은 김희일이 처형되기 전 그를 살려줄 요량으로 찾아가지만 김희일은 끝내 김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저자거리

김희일이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명진스님은 미친 땡중 행세를 하면서 다가가 예종이 무사함을 전한다.

#동굴

꿈에 형을 본 예종은 불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강이는 극구 말린다. 예종은 강이가 대장간에 간 틈을 타서 혼자 산을 내려온다.

#마을입구

한밤중 집으로 찾아온 예종은 바우어미를 만나 형이 효수되어 저자에 걸려있다는 말을 듣는다.

#저자거리

예종은 형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다가 목을 매려는걸 명진스님이 구해낸다.

#산속 암자

예종은 형이 준 단도로 머리를 깎고 명진스님은 ‘혜원’이라는 법명을 내린다.

#한림원 일각

김원은 예종이 나타났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추적하라고 하지만 끝내 예종을 찾을 수 없었다.

#저자거리

장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치수에 실패한 광종을 책망하는 벽서가 붙는다. 왕이 기청제를 지낸다는 소식에 백성들도 희망을 갖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주일대는 물바다가 된다.

#대장간

신임 청주목 부사는 철당간을 서둘러 완성하라고 다그치고 막철과 강이는 감시꾼들 눈을 피해 두가지 발문을 준비하고 있다.

강이는 예종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명문을 완성해간다.

#동굴

예종은 먼저 간 형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과 부처님 말씀을 섬기는 승려의 마음가짐을 적어 내려가며 밤을 지낸다.

예종은 앉은 자세로 숨을 거두고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다.

#용두사

철당간 축성식이 열리는 날. 세찬 비바람 속에도 백성들이 모여든다.

김원은 왕의 교지가 제대로 새겨졌는지 확인한다

강이는 명진스님에게서 예종이 보낸 편지를 받는다. 하나는 김희일에게 보내는 편지고 또 하나는 강이에게 주는 꽃신 그림과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다는 편지다.

비는 그칠줄 모르고 천둥번개까지 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철당간을 세우는 일은 쉽지가 않다. 결국은 벼락이 용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용머리가 검게 그을리고 찌그러진 채 용두사 마당에 뒹군다.

백성들은 불길한 징조라고 불안해하면서도 절을 떠나지 못한다.

강이는 김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예종이 형에게 보낸 편지를 지주석 아래 묻고 예종을 위한 발문이 씌어진 원통으로 바꿔치기한다.

용머리 없는 철당간이 곧게 서고 축성식이 시작된다.

그런데 어디선가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사람들은 용이 우는 소리라고 수근대며 두려움에 떠는데 드디어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일대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비가 그쳤다면 환호하는데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려오더니 철당간 아래서 흰 연기가 새나오기 시작한다. 곧이어 철당간 꼭대기에서 큰 불을 내뿜으며 두마리 용이 힘차게 솟아올라 경내를 한바퀴 휘감더니 모든 빗줄기와 안개를 빨아들이며 승천하고 온 천하에 햇별이 내리쬐기 시작한다.